

이석훈 번역 「로빈슨漂流記」 연구

신미삼*

요약

본고의 목적은 조선의 소설가 이석훈이 번역한 『로빈슨漂流記』를 연구하는 데에 있다. 이석훈 번역의 『로빈슨漂流記』는 2019년 여름, 새롭게 발굴된 작품으로 작품의 발굴 경위와 간단한 해제는 작년에 필자가 한 바 있으나 당시로서는 원전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연구에 미흡함이 많았다. 본고는 이의 연속 작업으로 당시 남은 과제로 남겨두었던 이석훈의 번역 소설 『로빈슨漂流記』의 원전을 찾아 이를 확정 짓고, 이를 통해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석훈이 번역한 『로빈슨漂流記』의 번역 저본은 1927년 일본에서 번역된 기쿠치 간의 『로빈슨 표류기』이다. 즉, 이석훈은 중역(retranslation)을 한 것이다. 기쿠치 간의 번역본이 이석훈 번역본의 저본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석훈이 『로빈슨漂流記』를 번역한 1939년 전까지, 일본에서 번역된 『로빈슨 크루소』 총 54편의 목차를 분석해 본 결과 오직 꼭 한 권 기쿠치 간의 『로빈슨 표류기』만이 이석훈 번역본의 매화 제목과 목차 제목이 거의 같았다. 둘째, 이석훈과 기쿠치 간의 두 번역본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상동성이 발견되었다. 대체적으로 각 장의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나, 문단의 첫 번째 문장들은 문장 서술이 거의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영어 원서에 'Xury'라고 표기된 인명을 기쿠치 간과 이석훈만이 '엑슈리'로 번역하고 있다. '엑슈리'라는 번역은 필자가 조사한 1939년 전까지 일본에서 번역된 『로빈슨 크루소』 총 54편 중 미견 작 17편을 제외하고 기쿠치 간의 번역만이 유일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필자는 본고에서 이석훈의 『로빈슨漂流記』의 번역 저본은 기쿠치 간의 『로빈슨 표류기』로 확정지어 보았다.

주제어: 이석훈, 로빈슨漂流記, 기쿠치 간, 少年朝鮮日報, 번역, 원전

*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글쓰기센터 초빙교수

목차

1. 서론
2. 「로빈손漂流記」의 번역 동기
3. 원전 확정: 기쿠치 간(菊池寛) 역의 「로빈손 표류기(ロビンソン漂流記)」
4. 결론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조선의 소설가 이석훈(李石薰, 1907-1950?)이 번역하여 『少年朝鮮日報』에 연재한 「로빈손漂流記」(1939. 6. 25.-1939. 9. 10. 총 12회 연재)의 원전을 확정짓는 데에 있다. 이석훈 번역의 「로빈손漂流記」는 2019년 여름, 새롭게 발굴된 작품으로 이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는 필자 조사에 의거하는 한 필자 해제 외 아직까지 없다.¹⁾ 물론 이석훈 역의 「로빈손漂流記」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전이 대니얼 디포(Daniel Defoe, 1660-1731)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1719)인 만큼 연구 성과가 전 세계적으로 넘쳐난다. 우리나라에서도 『로빈슨 크루소』는

1) 줄고, 「이석훈의 「로빈손漂流記」, 발굴과 소개」, 『근대서지』 제20호, 근대서지학회, 2019. 12. 30.

이석훈의 「로빈손漂流記」가 언급된 꼭 한 논문이 있으나 이는 이석훈의 「로빈손漂流記」에 삽입된 삽화를 연구한 것일 뿐 「로빈손漂流記」를 본격적인 텍스트로 삼아 연구한 것은 아니다.(조성순, 「대중성과 예술의 경계에 선 『소년조선일보』 삽화」, 『근대서지』 제20호, 근대서지학회, 2019. 12. 30.)

한편 『少年朝鮮日報』에 연재된 이석훈의 「로빈손漂流記」에 관한 정보와 자료는 현재 『근대서지』의 회장으로서 계신 오영식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오영식 선생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당시 선생님께서 받은 자료는 전체가 아닌 일부였다. 입수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2회, 4회, 5회) 필자가 직접 조선일보사의 독자센터로 문의하여 100년사 편찬실/문화부 이태훈 씨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었다. 이태훈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개화기에 번역(엄밀히 말하여 변안)됨으로써 ‘변안’의 개념과 형식, 원전, 역자의 ‘의도’ 등에 관한 연구 성과가 많았고,²⁾ 또 최근에는 탈식민주의 연구에 힘입어 작품 속에 드러난 식민주의를 비판하거나 젠더와 계급, 인종적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한 논문이 있다.³⁾ 원전이 자본 축적을 다룬다는 점에서 경제학과에서도 연구물이 생산되었다.⁴⁾ 하지만 이석훈 번역의 『로빈슨漂流記』에 관한 연구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선행 연구는 당시 원전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만큼 연구에 미흡함이 많았다. 본고는 이의 연속 작업으로 당시 남은 과제로 남겨두었던 이석훈 역 『로빈슨漂流記』의 번역 저본을 확정 짓고 이를 통해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2) 金秉喆, 『開化期の 翻譯文學』,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乙酉文化史, 1975.

김수자, 「20세기 초 최남선의 ‘세계적 지식’의 전달 방식—《로빈슨 크루소》번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30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6. 6.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09, 159-162면.

박진영, 『번역과 변안의 시대』, 소명출판, 2011.

오현숙, 『개화계몽기 『로빈슨 크루소』의 변안과 아동 텍스트로의 이행』, 『비평문학』, 한국비평학회, 2012. 12.

황미정, 「근대초기 번역소설의 번역어 연구—「거인국표류기」, 「로빈슨무인절도표류기」의 일본어 번역본과의 비교분석—」, 『일본문화연구』 제51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7.

3) 고부웅, 『역사비평 속의 식민이데올로기—『로빈슨 크루소』에 나타난 식민주의—』,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5. 11.

최병갑, 『로빈슨 크루소: 정치적 읽기』, 『신영어영문학』 16집, 신영어영문학회, 2000. 8.

박홍규, 『우리 안의 괴물들, 로빈슨 크루소와 오리엔탈리즘』, 『초등우리교육』, 초등우리교육, 2003. 8.

배경진, 「디포의 도덕적 지리학」, 『현대영미어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현대영미어문학회, 2017. 10.

배혜정, 「로빈슨 크루소와 부르주아 남성성」, 『역사와 경계』 104, 부산경남학회, 2017. 9.

4) 원용찬, 「대니얼 디포와 로빈슨 크루소 ①: 근대 부르주아지의 가족과 합리적 개인의 탄생」, 『인물과사상』, 인물과사상사, 2014. 3.

_____, 「대니얼 디포와 로빈슨 크루소 ②: 자본주의 여명기에 나타난 원시적 자본축적의 모습들」, 『인물과사상』, 인물과사상사, 2014. 4.

이 외에도 『로빈슨 크루소』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기대되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석훈이 『로빈손漂流記』 연재한 1939년 이전까지 조선과 일본에서 번역된 『로빈손 크루소』를 정리함으로써 실증적인 하나의 연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이석훈 역 『로빈손漂流記』의 번역저본을 확정함으로써 근대문학의 서지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로빈손漂流記」의 번역 동기

주지하다시피 『少年朝鮮日報』는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사에서 1937년 1월 10일에 창간한 어린이 신문이다. 원래는 일제강점기 하루 10면 발행하던 『조선일보』를 1936년 1월 7일부터 조간 4면, 석간 8면의 12면제로 증면하면서 월요일마다 『소년조선일보』라는 제호로 1면씩 곁들여 발행하던 것을, 1937년 1월 10일부터 매주 일요일 타블로이드판 4면의 『少年朝鮮日報』로 독립해서 발행한 것이다.⁵⁾

—

(상략)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어대까지던지 어린이에 대하여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그 양육, 교훈, 대우등에 주의하여야 할것입니다.

二

그러한 견지에서 본사에서는 매해 유치원원유회도 개최하고 또 매월 요일마다 소년조선일보라는 한페이지를 내어 왔습니다. (중략) 그런데 출판물로나 기타의교육재료로나 넘어도 빈약한 오늘날의 현상으로서는 우리 어린이의 귀엽고 아름다운 지식욕을 안타까웁게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참고. (검색어: 소년조선일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드디어 소년란을확장하여 본보의 부록으로 매일요일마다 타블로이드형의 네페—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社説 소년란을내면서』, 『朝鮮日報』(朝刊), 1937. 1. 10.)



1937년 1월 10일부터 독립해서 발행된 타블로이드판의 『少年朝鮮日報』는 이처럼 조선일보사가 “압날 사회의 주인공이요 젊은조선의 단별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새해 새사업으로 계획한” 것이었다.⁶⁾

이석훈은 『少年朝鮮日報』에 「로빈슨漂流記」를 1939년 6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12회간 연재하였다. 원래는 “팔월호 부터 『少年』에다 실끼로예정하였던 것인데 사정에의하여” 『少年朝鮮日報』에 연재되었다고 한다.⁷⁾ 『少年』지는 1937년 조선일보사출판부에서 발행한 월간 어린이 잡지이다. 「로빈슨漂流記」의 구체적인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6) 『少年朝鮮日報』 今=日=曜=부=터=發=刊, 『조선일보』, 1937. 1. 10.(광고)

하지만 같은 해 10월 1일부터는 본지의 특집으로 다시 환원하여 발행되다가, 1940년에는 『朝鮮日報』의 강제 폐간으로 결국 없어졌다. 해방 후, 1965년에는 대판 2면으로 복간·발행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참고. 검색어: 소년조선일보)

7) 李石薰, 『로빈슨漂流記』(1), 『少年朝鮮日報』, 1939. 6. 25.

〔표 1〕 李石薰, 『로빈손漂流記』 서지 사항

『로빈손漂流記』(1)	1939년 6월 25일
『로빈손漂流記』(2)	1939년 7월 2일
『로빈손漂流記』(3)	1939년 7월 9일
『로빈손漂流記』(4)	1939년 7월 16일(원문에는 3회로 오식)
『로빈손漂流記』(5)	1939년 7월 23일(원문에는 4회로 오식)
『로빈손漂流記』(6)	1939년 7월 30일(원문에는 5회로 오식)
『로빈손漂流記』(7)	1939년 8월 6일
『로빈손漂流記』(8)	1939년 8월 13일
『로빈손漂流記』(9)	1939년 8월 20일
『로빈손漂流記』(10)	1939년 8월 27일
『로빈손漂流記』(11)	1939년 9월 3일
『로빈손漂流記』(12)	1939년 9월 10일

이석훈이 『로빈손漂流記』를 번역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여겨진다. 첫째, 바다, 모험, 여행 등에 관한 개인적 관심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석훈의 아버지 이준기(李垞基) 씨는 정주 읍장을 지낸 후 과수원을 은 행에 저당 잡혀 정주 앞바다 애도(艾島, 축섬)에서 백하(白蝦) 가공 공장을 경영한 바 있다.⁸⁾ 애도는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平安北道 定州郡 葛山面)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⁹⁾ 사업은 실패하여 아버지는 결국 광인이 되고 말았지만,¹⁰⁾ 당시 애도에서 경영된 아버지의 사업은 이석훈의 평생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해방 후 이석훈은 해군에 정훈장교로 입대하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래 나는 海邊에서 자랐고, 집에서 海事를 하였던 관계로 多少 바다와 因緣이 있었던 것과 『콘라아드』니 『메리메』니 『로티』니 『멜빌』이니 내지

8) 김용성, 『민족사의 비극적 궤적을 따라간 삶과 문학』, 이석훈 저, 김용성 편, 『이주민 열차(외)』, 종합출판 범우, 2005, 414면.
 9) 李石薰, 『가을과 鄉愁』, 『東光』, 東光社, 1932, 10, 340면.
 10) 牧洋, 『男の征く所』, 『綠旗』, 興亞文化出版株式會社, 1943, 9, 240면.

『쓰시마』의『쁘리보이』에까지¹¹⁾ 讀書가 미치기에 이르러, 海洋에로 나의 꿈은 펼쳐졌다. 그래서 심지어『노모드호오프·엔드·호울』의『暗黒의江』이며『재크·런든』의『南洋放浪記』¹²⁾까지 찾아 읽게 되고, 『엑조티즘』의 魅力까지 도와서 나의 憧憬의 나라는 먼 바다 밖으로 飛翔하게 됨에, 그러한 浪漫에 이끌리어 海軍에 뛰어 들었다고나할까.” (李石薰, 『本職과現職 小説과軍人』, 『民聲』, 高麗文化社, 1950. 3, 35면)

이석훈이 해방 후 해군에 입대한 이유는 의대를 다녔던 큰 아들의 학비 마련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지만¹³⁾ 이처럼 바다의 아들로 자라난 자신의 개인적 이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어업과 이로 인한 성장기 그의 섬 생활은 바다에 낭만을 품게 하는 충분조건이었다. 여기에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과 그 탐독은 그를 ‘먼 바다 밖’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모험심을 가지게 하는 필수조건이었다. 이 두 조건은 이석훈에게 꼭 맞아 그를 바다에의 동경과 낭만으로 이끌었다. 이로써 그가 왜 대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선택하여 ‘冒險海洋小説’을 표나게 내세우며 번역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다.

심지어 이석훈은 바다에 대한 자신의 동경심을 주인공에게 투영시켜

11) 『쓰시마』의『쁘리보이』는 소련 작가 노비코프 프리보이(No'vikov-Priboi', 1877-1944)의 『쓰시마(Tsusima)』(1932-1935)를 가리킨다. 쓰시마 해전을 취급한 장편 『쓰시마』는 그의 대표작으로, 러시아인의 히로이즘과 전쟁에 패한 것은 러시아 국민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체 정치 때문이었음을 드러낸다.(편집부 편, 『최신 인명사전』, 민중서관, 1992, 155면 참고)

12) 일본어 번역서로는 チャック・ロンドン(London, Jack) 著, 天光社編輯部 譯, 『南洋放浪記』, 東京: 天光社, 1929이 있다. 잭 런던(1876-1916)은 미국 소설가이다. 주요 저서에는 니체풍의 초인을 연상하게 하는 바다 표범 잡이 배의 선장을 그린 『바다의 이리』(1904)와 자전적 소설 『존 발리콰(John Barleycom)』(1913) 등이 있다. 1904년 『샌프란시스코 익저미너』지의 중군기자로 조선에 와서 YMCA의 초청으로 자신의 대표작 『황야의 절규(Call of the Wild)』(1903)의 낭독회를 연 바 있다. 또 일본군을 따라 러일전쟁을 취재하면서 조선에 대한 글들을 여러 곳에 기고하였는데, 1982년 프랑스에서 『조선사람 옛보기(La Corée en feu)』란 제명으로 출판되었다.(한국어 역: 잭 런던, 윤미기 역, 『잭 런던의 조선사람 옛보기』, 한울, 1995)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참고.(검색어: 잭 런던)

13) 김용성, 『민족사의 비극적 궤적을 따라간 삶과 문학』, 이석훈 저, 김용성 편, 앞의 책, 423면.

원서에 없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대단히바다를 그리워했습니다. 배사람(船人)이되어서 넓고넓은 큰바다를 항해(航海)하면 얼마나즐겁고 통쾌하랴! 아지못하던 아름다운 세상구경도 할수있고 보도듯도 못하던 신기한일도 내눈으로 보고 배울수 잇슬것이 아니라? 그러면얼마나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행복스러우랴?— 이렇게 늘 혼자공리했습니다. (『로빈손漂流記』(1))

바다와 모험에 관한 이석훈의 낭만과 동경은 『로빈손漂流記』의 번역 연재로 그치지 않고 1940년과 일제 말 그리고 해방 후 작품 활동으로까지 꾸준히 이어진다. 1940년에는 ‘長篇海洋小説’을 내걸은 『바다의歎息』을 창작하여 잡지 『太陽』에 연재하였다.(1940. 2-3. 합병호)¹⁴⁾ 일제 말에는 『十年後』라는 ‘回覽板小説’을 창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십 년이 지났다는 가정 하에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의 남양 개척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¹⁵⁾ 한편, 해방 후에는 『똥똥이의 모험-南洋篇』을 1946년 간행하였다. 유족에 의하면 이는 라디오 방송물(드라마 혹은 낭독물)로 쓴 것을 단행본으로 펴낸 것인데, 전편(前篇)에 해당하는 김래성(金來成)의 『똥똥이의冒険-박쥐篇』(上卷, 永文社, 1946. 아동 도서, 탐정 동화)의 속편으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은 것이라고 한다.¹⁶⁾ 1946년 12월 24일자 『동아일보』 『신간 소개』에는 이석필(李石弼) 저 『똥똥이의 모험』(金龍圖書會社)과 이석필(李石弼) 저 『똥똥이의 모험-南洋篇』(金龍圖書文具株式會社)이란 책이 각각 소개되어 있는데, 다음 해 『京郷新聞』 『신간』란에는 이 두 권의 책이 각각 “李石薰” 저서로 소개되고 있어, ‘弼’은 ‘薰’의 오식 혹은 해방기 이석훈의 가명이었음을 시사한

14) 하지만 ‘장편소설’이 무색하게 연재는 제1회로 그치고 만다.

15) 牧 洋, 『十年後』, 『日本婦人』, 京城 大日本婦人會 朝鮮本部, 1944. 12. (집필: 10일 11일) 자료 제공: 오영식

16) 이석훈의 3남 이승우 씨 교시, 2013. 7. 30.

다.¹⁷⁾ 이처럼 유년 시절, 그를 둘러싼 성장 환경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바다와 모험에 대한 동경은 이석훈의 평생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루지는 못했지만 생전 이석훈은 죽어서도 “艾島의南쪽언덕에 파묻히어물결고문안바다를 바라보”고 싶어 했다.¹⁸⁾

이석훈이 『로빈슨漂流記』를 번역한 두 번째 이유는 아동과 아동문학에 대한 그의 평소 관심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이석훈은 당시 러시아 〈브나로드(V·narod)〉 운동에 강한 영향을 받아 “某島서 『브나로드』運動을實踐”한 바 있다.¹⁹⁾ ‘某島’는 ‘애도(艾島, 쑥섬)로 여겨진다. 이석훈의 애도에서의 〈브나로드〉 운동 모습은 그의 조선어 소설 『黃昏의 노래』(『新東亞』, 新東亞社, 1933. 6-12)의 주인공(정철)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정철’은 작가 이석훈의 분신이다. 늦가을 S섬으로 들어 온 정철은 “가난한어린이들에게까지 교육의 혜택을 잃이게할수없을까? 그리고 빈약하기짝이없는 신명학교를 좀 개량할수없을까?”²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S섬의 대문자 ‘S’는 애도의 별칭이었던 ‘쑥섬’의 이니셜이 분명하다.

이석훈이 애도에 들어간 시점은 1926년 겨울 즈음이지만,²¹⁾ 〈브나로드〉 운동에 참여한 시점은 애도에 들어가기 전인 1926년 여름 고향 정주에서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석훈은 관립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일본 도쿄로 가(1925. 3. 19세, 만 18세), 1년 뒤 제1와세다고등학교원에 입학하였다.(1926. 4. 26. 20세, 만 19세) 하지만 당시 몰락되어 가

17) 李石薰, 뿔뿔이모험(南洋篇), 金龍圖書文具株式會社, 45원(『新刊』, 『京郷新聞』, 1947. 1. 5)
_____, 뿔뿔이의 모험(南洋篇), 金龍圖書株式會社, 90원(『新刊』, 『京郷新聞』, 1947. 11. 12)(『뿔뿔이는 ‘뿔뿔이’의 오식 추정)

18) _____, 『金剛山과나』, 『中央』, 朝鮮中央日報社, 1935. 7. 64면.

19) _____, 『作家短篇自叙傳』, 『三千里文學』, 三千里社, 1938. 1. 259면.

20) _____, 『黃昏의 노래』(5), 『新東亞』, 新東亞社, 1933. 10. 171면.

21) _____, 『追憶의대보름밤 艾島의봉죽노래: 話題의一』, 『中央』, 朝鮮中央日報社, 1935. 2. 13면.

는 가운(家運)으로 신경쇠약에 시달리다 결국 학업을 포기한 채 일본에서 돌아와야 했다. 귀국 시기는 1926년 5월 28일 밤 혹은 6월 중순경 밤이다.²²⁾ 그런데 정주 유학생 학우회의 임시총회 소식을 전하고 있는 『東亞日報』 1926년 8월 4일 『關西地方』 기사를 보면 ‘李錫熏’이란 이름이 있다. ‘李錫熏’은 일본에서 귀국한 이석훈일 가능성이 높다. 이석훈은 고향이 정주인데다, 당시 이석훈 본명의 ‘훈(薰)’은 다른 한자로 오식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²³⁾ 기사는 정주유학생회에서 하기 아동 학교 개최를 위해 힘쓰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석훈의 학적에 관한 와세다(早稻田)대학 교무부의 조사 결과 보고서』(1994. 12. 13. 의뢰인: 오무라 마쓰오(大村益夫)에 의하면 그는 1926년 9월 7일에는 휴학을, 1927년 3월 30일에는 퇴학을 하였다. 그러므로 1926년 8월 시점에서는 정주 유학생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아동과 그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이석훈이었기에 초창기 그의 문학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아동 문학으로 향하였다. 그는 이중어 공간이었던 일제강점기, 조선어와 일본어로 창작을 병행하였는데 일본어로 발표한 작품으로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작품은 동요이며(李石薰, 『대장간의 할아버지(鐵蹄屋の爺さん)』, 『釜山日報』, 1929. 1. 18),²⁴⁾

22) ① 1926년 5월 28일 밤: 李石薰, 『[잊혀지지않는그이] 三十四時間的印象』, 『第1線』, 開闢社, 1933. 2, 90면. ② (1926년) 6월 중순경 밤: 리석훈, 『[車船中에서매져진로-댄스 스무時間의戀愛』, 『朝光』, 朝鮮日報社出版部, 1936. 6, 43면.

둘 중 한 편은 기억의 착오이다. 두 글은 귀국 시 벌어진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23) ① 金錫熏, 『섬안악네』, 黃錫禹編, 『青年詩人百人集』, 朝鮮詩壇社, 1929, 103면.(이석훈은 ‘金錫熏’은 ‘李錫熏’의 오기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李石薰, 『名士 漫問漫答』, 『朝光』, 朝鮮日報社出版部, 1939. 1, 260면 참고) ② 『謹告』, 『每日申報』, 1930. 2. 20.(이석훈이 『매일신보』 강원지국 기자로 입사함을 알리는 글. 이석훈 이름을 ‘李錫熏’으로 표기)

24) 이석훈이 일본어로 발표한 최초의 작품은 1926년 가을 일본 나고야(名古屋)의 모 동인지에 수록한 『섬 처녀(島の娘)』와 그 외 1편이라고 한다.(李石薰, 『名士 漫問漫答』, 『朝光』, 260면 참고) 작품을 찾기 위해 애썼으나 필자 조사에 의거하는 한 찾을 수 없었다. 이 자리를 빌려 나고야 소재 대학 도서관 사서분들과 시립 도서관의 사서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나고야대학(名古屋大學)의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선생님, 이다 유코(飯田祐子) 선생님

조선어로 발표한 최초의 작품은 『朝鮮日報』에 발표한 「아버지를차저서」(1929. 10. 31-11. 7)라는 동화이다. 「아버지를차저서」는 열 살 먹은 ‘일남(日男)’이가 아버지를 찾아서 떠난다는 내용이다.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모험담’이다. 자신의 두 가지 관심사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이 같은 ‘소년 모험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 ‘인돌이’가 어머니를 찾아 떠난다는 내용의 「放浪兒」(『東光』, 東光社, 1932. 6), ‘이성준(李成俊)’이 가출한 어머니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일본어 소설 「한강의 뱃노래(漢江の船唄)」(『新女性』, 興亞文化出版株式會社, 1942. 11-12) 등으로 꾸준히 창작되었다.

『로빈손漂流記』의 번역·연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원작은 아동 문학이 아닌 성인 문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훈은 아동 텍스트로 이행시켜 번역하였던 것이다.

나는 영국『요-크』시에서 낫습니다. 셋째아들입니다. 이름은『로빈손·크루-쇼-』라합니다.간단이『로빈손』이라 불러주십시오.나이는 몇살이나 구요? 그저 독자 여러분과 비슷하게만 알려두십시오. 그러니까 나도 물론소년입니다. (『로빈손漂流記』(1), 강조와 밑줄은 인용자, 이하 상동)

물론 독자를 아동으로 설정하여 번역한 이가 이석훈이 처음은 아니다. 원작 『로빈손 크루소』는 전 세계적으로 성인문학에서 아동문학으로 이행한 대표적 작품으로 서구는 물론이며²⁵⁾ 일본에서도 아동문학가 이와야

그리고 도쿄(東京) 니쇼가쿠사대학(二松學舍大學)의 세리카와 테츠요(芹川哲世)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런데 이석훈은 「섬 처녀(島の娘)」라는 제목의 ‘민요’를 애도에서 집필하여 1929년 10월 30일 『釜山日報』에 발표한 바 있다. 1926년 나고야의 모 동인지에 수록한 작품과 같은 작품일까?

25) “서구의 경우 독자적인 아동문학 시장이 확립되기 이전인 18세기 중엽에, 성인 텍스트들은 아동을 위한 텍스트로 빈번하게 변안되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 다니엘 디포의 『로빈손 크루소』(1719)와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1726)이다.”(오현숙, 앞의 논문, 300면.)

사자나미(巖谷小波, 1870-1933)에 의해 『無人島大王 ロビンソン漂流記』로 번역된 바 있고,²⁶⁾ 조선에서도 김찬(金欖), 최남선(崔南善, 1890-1957), 정인과(鄭仁果, 1888-1972)에 의해 각각 소년 교양물로 변용된 바 있다.(아래 [표 2] 참고) 이석훈 역시 ‘아동’이 평소 자신의 관심의 대상인데다가 연재지의 성격에까지 주목하여 『로빈슨 크루소』를 아동 텍스트로 이행시켜 번역하였다. 심지어 이석훈은 원서에 없는 다음과 같은 내용까지 마지막 회에 ‘추가’한다.

여행은 참으로즐거운것입니다 여행을 하는데사람은배우는것도만코 잇는것도 만흐며 인정(人情)도 이해할수 있습니다.여리분도 여행을 만히 하기를 권합니다.그리고 모험도 할만한일입니다.다만 무턱대고 헤서는아 무소용이 업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계획대로 실행하여야 할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해 나아가는데는 굳센 의지가 필요힙니다.어려운것을 참어나 가는 압길에는 반드시광명(光明)이 비칠것입니다. (『로빈슨漂流記』(12))

‘여행’과 ‘모험’을 수신자인 ‘아동’에게 직접 권하고 있는 상기 인용문을 통해 그가 왜 『로빈슨 크루소』를 번역하여 『少年朝鮮日報』에 연재하였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표 2] 근대 조선에서 번역된 『로빈슨 크루소』 목록

순번	저자	역자	역서 명	출판사	발행년	비고
1		작자 미상	『그루소의혹인을 엇어동모험』, 『그리스도신문』		1902. 5. 8.	-6권 19호 -원본 속 인물 ‘금요일’을 ‘육 일(六日)’(토요일)로 변형하 여 번역
2	-	金欖	『絶世奇談 羅賓孫漂流記』	京城 義進社	1908	일역서(ゾーフラー, 井上勤), 『絶世奇談 魯敏孫漂流記』

26) 大江小波 編, 『無人島大王 ロビンソン漂流記』(世界お伽新 第五編, 東京: 博文館, 1905.(초판: 1899) 오에 사자나미(大江小波)는 이와야 사자나미의 초기 필명. 본명은 이와야 기오(巖谷季雄)

						東京: 博聞社, 1883)의 중역 ²⁷⁾
3	-	崔南善	『로빈손無人絶島漂流記』(1)-(6), 『少年』	漢城 新文館	1909, 2, 3, 4, 7, 8, 9.	-대회 제목 조금씩 다름 1회 본문 제목: 『로빈손無人絶島漂流記』(標는 漂의 오식) 2, 4-5회 목차 제목: 『로빈손無人絶島漂流記』 3회 목차 제목: 『로빈손漂流記』 1-2회 『少年』 길면 제목: 『로빈손漂風奇談』 3-6회 『少年』 길면 제목: 『로빈손漂風記』 -1935년 한글학회에서 발행한 『한글』에 8회에 걸쳐 재수록.(2, 4, 6, 8-12월) ²⁸⁾
4	Daniel Defoe	-奇一牧師 -李源謨	『그루소표류기—무인절도에서과선홍—』	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925	奇一牧師: J. S. Gale. D. D. (英國人)
5	-	鄭仁果	『로빈손크루소』(1)-(7), 『아이생활』	京城 아이생활社	1930. 10. 12,- 1931. 1, 2, 4, 5, 6.	1장: 아담문고 소장 2장: 미견 3, 5-7장: 오영식 선생님 제공
6	다니엘·디포-	李石薰	『로빈손漂流記』, 『少年朝鮮日報』		1939. 6. 25.- 9. 10.	

27) 金秉喆, 『開化期の 翻譯文學』,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乙酉文化史, 1975, 267면.

28) 최남선의 『로빈손無人絶島漂流記』는 1935년 한글학회에서 발행한 『한글』에 재수록되었다. 그런데 두 판본을 원본 대조해 보면 차이점이 있다. 가령, 『少年』 판에는 있지만 『한글』 판에는 누락된 단어나 역주도 있고 『少年』 1회 21면 “西曆”, 『少年』 5회 41면 역주, 바뀐 단어도 있으며(『少年』 1회 21면 “썬리텐”→『한글』 1회 30면 “영국”), 현대 국어식으로 바뀐 표기도 있다.(『少年』 5회 31면 “올녘소이다”→『한글』 4회 36면 “올리었습니다”) 또 한자를 한글로 바꾸거나(『少年』 5회 32면 “壙中”→『한글』 4회 36면 “광중”), 좀 더 풀어 써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도 한다.(『少年』 5회 37면 “쉬게둔”→『한글』 5회 34면 “쉬게하여 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少年』 6회 마지막 장에 있는 “新大韓少年”에 대한 최남선의 당부의 말이(43-44면) 『한글』 판에서는 통째로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국권을 잃기 ‘전’과 ‘후’의 출판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석훈이 『로빈손漂流記』를 번역한 세 번째 이유는, 당시 그는 전업 작가로 전향하여 글쓰기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 최소한의 생계수단으로 입사한 회사가 바로 조선일보사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석훈이 『로빈손漂流記』를 연재하기 시작했던 1939년 6월 말은 그가 전업 작가를 선언하여 다니던 방송국을 그만둔 지 두 달쯤 되는 시기였다. 방송국은 1933년 경성방송국 입사가 최초로,²⁹⁾ 그만둘 시점의 근무지와 직위는 “咸興新設放送局” “방송과장”이었다.³⁰⁾ 방송국에서는 사택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財産이없는處地에 많은 眷屬을거느리고” 살았던 이석훈에게는 매우 “安全性있는 職業”이었다.³¹⁾ 이런 직장을 “그만두기란 容易한일이아니”었지만 “別般自我의向上도없는일에 倦怠를느낀것과 平素文學에專力해보리란 말하자면文學에의熱意”³²⁾에 끌려 1939년 5월 4일 방송국을 사임하였다.³³⁾ 그는 평소 “文學이란 것은 六七十年の 一生을거기다 받히더라도, 凡才로서는 大成하기 어렵다는것을느꼈고, 同時에 사내大丈夫의 平生事業으로 可히할만한 그리고 愉快한일”³⁴⁾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가난한 살림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일정한 월급이 나오는 직업인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문학 이외의 직업은 “『目的』이아니라『手段』이기때문에 本來의目的을爲해야”³⁵⁾ 과감히 그만 둔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 수단으로써 신문사에 입사한다.³⁶⁾ 그리고 그

29) 김용성, 『이석훈의 생애에 관한 소론』, 이석훈 저, 김용성 편, 앞의 책, 13면 및 김용성, 『작가 연보』, 이석훈 저, 김용성 편, 앞의 책, 444면 참고.

30) 李石薰, 『關西出身文人諸氏가 郷土文化』를말하는座談會, 『三千里』, 三千里社, 1940. 5, 170면, 김용성, 『민족사의 비극적 궤적을 따라간 삶과 문학』, 이석훈 저, 김용성 편, 앞의 책, 416, 444면 참고.

31) 李石薰, 『作家와職業』, 『朝光』, 朝光社, 1940. 7, 각각 202, 201면.

32) 인용은 모두 위의 글, 201면.

33) “依願解職(『朝鮮放送協會內報』第二十五號, 1939. 5. 11)

34) 李石薰, 『序』, 『黃昏의 노래』, 漢城圖書株式會社, 1936, 1-2면.

35) _____, 『作家와職業』, 『朝光』, 202면.

신문사는 바로 ‘조선일보사’였다. 조선일보사 출판부로 전직한 그는 이곳에서 『朝光』, 『女性』,³⁷⁾ 『少年』³⁸⁾ 및 『소년 조선』³⁹⁾을 편집하며 작품 활동에 열을 쏟았다. 「로빈슨漂流記」를 번역하여 『少年朝鮮日報』에 연재하게 된 이유에는 이처럼 전업 작가로 변신한 그의 신변상의 변화 또한 자리하고 있었다.

3. 원전 확정: 기쿠치 간(菊池寛) 역의 「로빈슨 표류기(ロビンソン漂流記)」

대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는 후속편이 있는 작품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널리 소개되어 온 『로빈슨 크루소』는 작품의 전부가 아닌 상편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1719년 4월 25일, 영국 런던 서점가에 이 책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책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요크 사람 뱃사람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이상하고도 놀라운 모험. 그는 아메리카 해안 큰 강 오루노크 하구 가까이의 한 무인도에서 완전히 홀로 28년을 살았음. 배가 난파되어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죽었고 혼자 해안으로 표류하였음. 그가 해적들에 의해 어떻게 마침내 희한하게 구출되었는지 이야기까지 포함함. 본인 스스로 썼음.”⁴⁰⁾ 당시 책 제목은 내용을

36) 상동.

37) 白川豊, 『李石薰(牧洋) 作品考 - 資料整理を中心に -』, 『朝鮮學報』 第160輯, 1996. 7, 183면. 『여성』지는 백석이 1939년 12월 출판부를 그만두고 만주로 가 버리자 이석훈이 그 뒤를 이어 편집을 담당한 것이다.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조선일보 사람들 - 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 스중앙, 2004, 525면)

38) 『機密室 - 우리社會의諸内幕 -』, 『三千里』, 三千里社, 1939. 6, 7면.

39) 文濟安, 『잊을 수 없는 拉北 선배들 (방송)』, 李銀九 외 編, 『돌아오지 못한 언론인들 - 6 · 25전쟁 言論受難史 -』, 社團法人 大韓言論人會, 2003, 122면.

40) 원서명: 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of Robinsón Crusoe of York, Mariner: Who lived Eight and Twenty Years, all alone in an un · inhabited Island on the coast of America, near

최대한 선전하는 광고성 표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관행이어서 제목이 길다.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어서, 불과 한 달 뒤 5월에 2쇄를 찍었고, 각지에서는 해적판이 등장하였으며, 그 외중에도 정본의 판매는 꾸준히 늘어 디포는 속편 『로빈슨 크루소의 후속 모험. 그의 생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임(*The Farther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Being the Second and Last Part of His Life*)』을 같은 해 8월 출간하였다. 그런데 19세기로 들어가면서 점차 속편은 떨어져나가고 『로빈슨 크루소』는 원래 처음 등장한 1권짜리 단행본으로 인식되고 정착되는 경향이 자리 잡은 것이다.⁴¹⁾

그런데 이석훈은 『로빈슨 크루소』 상·하편을 모두 번역하고 있다. 물론 완역이 아닌 발췌역(拔萃譯)이지만 하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석훈이 원전으로 삼은 책은 무엇이었을까. 이석훈은 어학에 능하여 일어, 영어, 러시아어를 잘하였다.⁴²⁾ 그러므로 영어 원서를 직접 구해다가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제 말기에 영어 ‘원서’를 구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역(重譯, retranslation)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특히 일본어로 번역된 책은 일제강점기였던 만큼 구하기도 읽기도 용이했을 것이다. 실제로 1935년 당시, 경성 황금정네거리에 있던 일본 마루젠(丸善) 서점의 경성 출장소에서는 “東京本店에서取扱하는 世界各國의 有名な書籍들은 대개 한두책일지라도 모다取扱”하고 있었다.⁴³⁾ 이석훈이 일본어로 번역된 『로빈슨 크루소』를 번역 저본

the Mouth of the Great River of Oroonogue; Having been cast on shore by shipwreck, where in all the Men perished but himself. With An Account how he was at last as strangely deliver'd by Pyrates. Written by Himself.(대니얼 디포, 윤혜준 역, 『판본 소개』, 『로빈슨 크루소』, 을유문화사, 2009(2008), 45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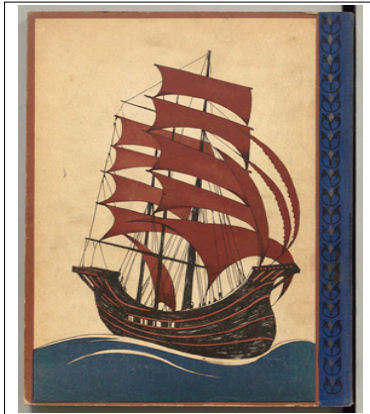
41) 이 한 문단은 위의 책, 459-461면 참고.

42) 金松, 「帽子를 껌매던 李石薰」, 『現代文學』, 現代文學社, 1963. 2, 263면.

43) 「朝鮮人으로 洋書보는사람들—丸善會社(書店)을찾고—」, 『三千里』, 三千里社, 1935. 10, 141면.

으로 삼아 다시 조선어로 번역했다고 가정한다면 이석훈이 저본으로 삼은 일본어 책은 무엇이었을까.

이석훈이 『로빈슨漂流記』를 번역한 1939년 전까지 일본에서 번역된 『로빈슨 크루소』는 필자 조사 결과 총 54편이다.(필자 미견 작 17편 포함. 본문 뒤 [표 5] 참고) 구로다 키구로(黒田麴慮, 1827-1892)라는 양학자(洋學者)에⁴⁴⁾ 의해 『漂荒記事』⁴⁵⁾라는 제목으로 처음 번역된 『로빈슨 크루소』는



〈사진 3〉 テフォー, 菊池寛譯,
『ロビンソン漂流記』(東京: 興文社,
1927) 책 표지

1857년 요코야기 야스조 요시키요(横山保三由清, 1826-1879)에 의해 『魯敏遜漂行紀略』으로 출판되고, 이는 1938년 히라다 토쿠보쿠(平田禿木, 1873-1943)의 『로빈슨 표류기·갈리버 여행기(ロビンソン漂流記・ガリバー旅行記)』로까지 이어진다. 54편의 출판 상황을 시기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이지(明治) 이전 시기에 발표된 작품이 2편, 메이지 시기(1868-1912. 7. 29)에 발표된 작품이 25편(미견 작 6편 포함), 다이쇼(大正, 1912. 7. 30-1926. 12. 24)·쇼와(昭和, 1926. 12. 25-1988) 시기에 발표된

44) 『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 東京: 朝日新聞社, 1994.(집필: 松田清)

45) 이 책은 총 6권으로 추정된다.(國書刊行會 編, 『文明源流叢書』 第1, 東京: 國書刊行會, 1913-1914 참고) 1권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무료 보기가 가능하다. 출판사는 長山東助, 출판년은 万延 1년 즉 1860년으로 검색된다.(1권의 판권란은 따로 없다.) 그런데 출판년은 다음과 같이 자료에 따라 다양하다.

① 1848년: 황미정, 앞의 논문, 442면 각주 6번.

② 1850년경(嘉永 3): 『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 앞의 책.

③ 1850-1851년: 林 直樹, 『『ロビンソン・クルーソー』とイギリス帝國』, 『尾道文學談話會會報』 8号, 尾道市立大學芸術文化學部日本文學科, 2018. 2, 6면.

④ 1851년경(嘉永 4): 川戶道昭·中林良雄·榊原貴教 編, 『明治期翻譯文學總合年表』(明治翻譯文學全集 《新聞雜誌編》 別卷 1), 東京: 大空社, 2001, 11면.

작품이 27편(미건 작 11편 포함)이다. 이 54편의 목차를 이석훈의 『로빈손 漂流記』의 목차와 일일이 원본 대조해 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미건 작이 안타깝게도 17편이나 있으나 미건 작 중에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dl.go.jp/index.html>)에서 목차 검색만은 가능한 작품도 있어 가급적 최대한 많이 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필자 조사에 의거하는 한 오직 꼭 한 권의 단행본이 이석훈의 『로빈손 漂流記』 매회 제목과 거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그 번역서는 기쿠치 간(菊池寛)이 1927년에 번역한 『로빈손 표류기(ロビンソン漂流記)』이다. 제목마저도 동일한 이 책의 목차를 이석훈 연재본의 제목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李石薰, 『로빈손 漂流記』 매회 제목과 기쿠치 간 역, 『로빈손 표류기』 목차

デフォー, 菊池寛譯, 『ロビンソン漂流記』(1927)	李石薰, 『로빈손 漂流記』(1939)
一 憧れの海へ	(1) 그리운바다로
二 またマタ大暴風	
三 ムール蠻地の脱出	(2) 蠻地脱出
四 ライオンの聲	(3) 사자의우름
五 難破	(4) 破船
六 絶海の孤島	(5) 외로운섬
七 堅固な要塞	
八 日記	(6) 섬생활日記
九 作物の敵	
一〇 土器を作る	
一一 舟を作る	
一二 島の王様	
一三 砂上の足跡	(7) 사람 ⁴⁶⁾ 의 발자국
一四 人間の骨	
一五 大洞窟の發見	
一六 食人種	(8) 식인종
一七 難破したスペイン船	
一八 逃げ出した土人	

一九 忠僕フライデー	(9) 忠僕프라이데이
二〇 進水式	
二一 白人の捕虜	
二二 父!父!	(10) 아버지! 아버지!
二三 英國船來る	
二四 追放された船長	
二五 戦闘開始	
二六 本船奪回	
二七 三十五年振りの歸國	(11) 三十五年만의歸國
二八 親切な船長	(12) 즐거운餘生
二九 熊と握手	
三〇 狼の襲來	
三一 再び島へ	
三二 惡者共の亂暴	
三三 土人同志の戰爭	
三四 土人の輸入	
三五 猛敵襲來	
三六 敵軍降伏	
三七 平和に輝く島	
三八 フライデーの死	
三九 船員の反感	
四〇 大成功の貿易	
四一 長艇の追跡	
四二 アジア大陸横斷	
四三 韃靼人の偶像	

영어 원서, 특히 『로빈슨 크루소』의 상권은 사실 목차가 없다. 기쿠치 간 역 외 『로빈슨 크루소』 일역본에서 발견되는 목차는 역자들이 독자의 이해를 돕거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임의로 그리고 자극적으로 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훈 역 연재본의 매회 제목과 기쿠치 간 번역본의 목차 제목은 거의 일치한다. 물론 총 206면에 달하는 기쿠치 간의 단행본을 이석훈은 고작 총 12회의, 그것도 매회 타블로이드판 6-7단 정도의

46) 원문대로. ‘랍’의 오식.

지면에 연재해야 했던 만큼 내용의 축소와 단순화는 불가피했다. 이는 [표 3]을 통해서도 한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석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번역한 부분의 제목을 살펴보면 기쿠치 간 역의 해당 부분 장 제목과 동일하거나 거의 같다. 이석훈의 연재본 중 오직 12회분(‘즐거운餘生’)만이 기쿠치 간의 번역본 목차와 전혀 다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기쿠치 간의 번역본은 원서의 발췌본이긴 하나 『로빈슨 크루소』 상·하편(1719. 4, 1719. 8)을 모두 텍스트로 삼고 있다. 그의 번역서 31장부터 마지막 43장까지는 원서 하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석훈은 마지막 연재만을 남겨 놓고 있었던 탓에 불가피하게 이를 모두 합쳐 단순 발췌하고 ‘즐거운餘生’으로 제목을 달리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역본의 내용적 측면은 어떠할까. 많은 예가 있지만 분량 관계상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들어 보고자 한다.

一六五一年の九月一日に、僕は船に乗り組みました。船がハンバー港を出るや否や、風が吹き出し、波は凄まじい形相で、立ち始めました。
(デフォー, 菊池寛譯, 『懂れの海へ』, 『ロビンソン漂流記』, 8면.(1장))

구월 초하룻날 나는『함번-』항(港)⁴⁷을떠나는배에 올랐습니다.배가 항구박글나서자 바람이 몹시부러서 물결은 성난사자와도 가치 거칠었습니다. (李石薰, 『로빈슨漂流記』(1), 『少年朝鮮日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석훈의 『로빈슨漂流記』의 분량은 기쿠치 간 역의 『로빈슨 표류기』에 비해 매우 적다. 게다가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석훈은 원서나 일역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석훈의 조선어 번역과 기쿠치 간의 일본어 번역을 1:1로 대응시켜 보기

47) 험버(Humber)(Daniel Defoe, *Robinson Crusoe*,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9. 옥스퍼드 본은 『로빈슨 크루소』 1719년 초판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가 곤란한 점도 있다. 하지만 상기 인용문과 같이 같은 제목을 중심으로 두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나 문단의 첫 번째 문장들은 문장 서술이 비슷하다. 물론 기쿠치 간의 번역본이 단행본인 만큼 이석훈의 번역본보다 자세하다. 하지만 기쿠치 간의 책도 원서의 완역이 아닌 발췌역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석훈과 기쿠치 간 번역본에서 발견되는 문장 구조의 유사성은 이석훈이 이 책을 번역 저본으로 삼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아래 표와 같이 두 번역본 모두에는 「『日記』/『섬생활日記』」 장이 있다. 영어 원서에는 1659년 9월 30일부터 1660년 9월 30일까지 일 년 중 대략 98일 정도의 일기가 쓰여 있지만,⁴⁸⁾ 기쿠치 간의 「『日記』」에는 1659년 11월 4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총 26일 간의 일기가, 이석훈의 「『섬생활日記』」 부분은 분량이 더욱 줄어들어 단 7일 간의 일기가 발췌역 되어 있다. 그런데 이석훈의 번역본은 기쿠치 간의 번역과 동일한 날짜의 일기부터 발췌역되어 있다.

〔표 4〕 李石薰, 『로빈슨漂流記』(6)과 기쿠치 간 역, 『로빈슨 표류기』 8장(『日記』) 날짜 비교

デフォー, 菊池寛譯, 『ロビンソン漂流記』(1927)	李石薰, 『로빈슨漂流記』(1939)
八 日記	(6) 섬생활日記
十一月四日。	十一月四日。
十一月十七日。	十一月七日。 ⁴⁹⁾
十一月十八日。	十一月十八日。
十一月二十三日。	
十二月十七日。	
十二月二十日。	
十二月二十八、二十九、三十、三十一日。	
一月一日。	一月一日。
一月三日。	一月三日。
四月十六日。	四月十六日。

48) Daniel Defoe, 위의 책, pp.60-88.

六月十六日。	
六月十七日。	
六月十八日。	
同十九日。	
同二十日。	
六月二十一日。	
六月二十二日。	
六月二十四日。	
六月二十五日。	
六月二十六日。	
六月二十七日。	
七月四日。	
九月三十日。	九月三十日。

일기의 내용은 어떨까. 며칠간의 일기를 살펴보자.

十一月四日。

今朝、僕は狩獵、晝寢、娛樂の時間割をきめた。即ち雨の降らない限り、毎朝二三時間は狩に行くこと、次は十一時までは勞働をすること、これから食事、この地方は暑氣が甚しいから十二時より二時まで晝寢をすること、夕方はまた勞働。(하략)

十一月十七日。

今日は後の岩堀を始めた、物を入れておく一寸した場所がほしいと
思つて。

(하략)

十一月十八日。

今日林の中へ狩に行つて、ブラジルでは、とても堅いので鐵木と云つて
みた木に似た木を見つける。さんざん苦勞して斧までこはして、その木
を少し切つたが、今度は重くつて、小屋まで運ぶのに、並大抵ではなかつ
た。(하략) (デフォー, 菊池寛譯, 『日記』, 『ロビンソン漂流記』, 42-43면, 8

49) ‘十一月七日’은 기쿠치 간 번역서의 ‘十一月十七日’의 오식이다.

장))

十一月四日. 오늘 아침 섬생활의 시간표를 정하다. 매일아침 두어시간 씩 사냥을할것. 쫓난뒤 오전열한시 까지는 일을할것.그다음점심.그리고 이지방은대단이더운곳이므로 열두시서부터 두어시간은 낮잠을잘것.저녁 때는 다시일을하고 (하략)

十一月七日. 벼랑미테 굴을파다.물건을간직해두기위함이다. 삽이업서 흙떠내기가 곤난하다.

十一月十八日.『브라질』에잇는 너무구든까닭에 쇠나무라 일컫르는 그 런나무와 흡사히 가튼 이름모를 나무를 찍다.도끼날이 떠러질만치 구든 나무다.고생고생해서 찍었스나 집에까지 가져오는것이 또 큰일이였다. (하략) (李石薰, 『로빈슨漂流記』(6), 『少年朝鮮日報』)

여기서도 각 장의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나 문단의 첫 번째 문장들은 문장 서술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석훈이 기쿠치 간의 번역본을 자신의 조선어 번역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단어의 번역을 들어 원전을 확정 지을 수 있다. 이는 인명으로, 연구 초창기 필자가 이석훈의 번역본을 읽으며 의아해 했던 부분이다. 영어 원서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 ‘Xury’⁵⁰⁾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보통 ‘쥬리’라고 번역되는 이 인물은 『로빈슨 크루소』 초반에 등장하는 인물로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고립되기 전 무어인들의 노예가 되어 터키에서 2년간 살다가 탈출할 때 본의 아니게 로빈슨 크루소와 행동을 같이 하게 되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석훈은 ‘쥬리’를 ‘엑슈리’라고 번역하였다. 필자는 왜 ‘엑슈리’로 번역했을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번역 저본으로 짐작되는 기쿠치 간의 번역본을 읽은 후 그 의문을 풀 수 있었다. 기쿠치 간 역시 ‘엑슈리(エツクシュリ)’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50) Daniel Defoe, 앞의 책, p.22.

‘엑슈리’라는 인명 번역은 필자가 조사한 1939년 전까지 일본에서 번역된 『로빈슨 크루소』 총 54편 중 기쿠치 간의 번역본이 유일했다.(미전 작 17편 제외)⁵¹⁾ 이석훈은 기쿠치 간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아 조선어로 중역하면서 ‘Xury’의 인명 또한 일본어 발음 그대로 ‘엑슈리’로 번역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필자는 이석훈의 『로빈슨漂流記』는 『로빈슨 크루소』 일역본을 저본으로 삼아 중역한 작품이며, 그 번역 저본은 바로 기쿠치 간의 『로빈슨 표류기』였음을 확정 짓고자 한다.

4.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少年朝鮮日報』에 번역 연재된 이석훈의 『로빈슨漂流記』를 연구해 보았다. 본문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로빈슨漂流記』가 수록된 『少年朝鮮日報』라는 매체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고 이석훈이 『로빈슨漂流記』를 번역하게 된 동기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석훈이 『로빈슨漂流記』를 번역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여겨진다. 첫째는 바다, 모험, 여행 등에 관한 그의 개인적 관심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유년 시절 그의 성장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는 아동과 아동문학에 대한 그의 관심 때문이었다. 셋째는 전업 작가로 변신한, 당시 그의 신변상의 변화 때문이었다. 과장 직함에 사택까지 제공되던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전업 작가로 전향한 그는 이제 오직 글쓰기로만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 수단으로 신문사에 입사하여 출판부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신문사가 바로 『少年朝鮮日報』를 발행하던 조선일보사였다.

3장에서는 원전 확정 작업에 들어가 이석훈이 번역한 『로빈슨漂流記』

51) 1848-1938년 사이 일본에서 번역된 『로빈슨 크루소』 총 54편 중 ‘Xury’의 번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문 뒤 [표 5] 참고.

의 번역 저본은 1927년 일본에서 번역된 기쿠치 간의 「로빈슨 표류기」였음을 드러내었다. 즉, 이석훈은 중역을 한 것이다. 기쿠치 간의 번역본이 이석훈 번역본의 저본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석훈이 『로빈슨漂流記』를 번역한 1939년 전까지 일본에서 번역된 『로빈슨 크루소』 총 54편의 목차를 분석해 본 결과 오직 꼭 한 권 즉, 기쿠치 간의 『로빈슨 표류기』의 목차 제목만이 이석훈 번역본의 매회 제목과 거의 같았다. 둘째, 이석훈과 기쿠치 간의 두 번역본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상동성이 발견된다. 이석훈 역의 「로빈슨漂流記」의 분량은 기쿠치 간 역의 『로빈슨 표류기』에 비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각 장의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나, 문단의 첫 번째 문장들은 문장 서술이 거의 비슷하다. 기쿠치 간의 번역서 역시 원서의 완역이 아닌 발췌역임에도 그러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석훈과 기쿠치 간 번역본에서 발견되는 문장 구조의 유사성은 이석훈이 이 책을 번역 저본으로 삼고 있음을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영어 원서에 'Xury'라고 표기된 인명을 기쿠치 간과 이석훈만이 '엑슈리'로 번역하고 있는 점이다. '엑슈리'라는 번역은 필자가 조사한 1939년 전까지 일본에서 번역된 『로빈슨 크루소』 총 54편 중 미전 작 17편을 제외하고 기쿠치 간의 번역만이 유일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필자는 본고에서 이석훈의 「로빈슨漂流記」의 번역 저본은 기쿠치 간의 「로빈슨 표류기」로 확정지었다.

한편, 연구를 진행하며 원서 『로빈슨 크루소』에서 드러나는 제국주의 사상이 이석훈에게 어떻게 계승되고 재생산되고 있는가 하는 새로운 연구거리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필자 조사에 의거하는 한 지금까지 한 번도 연구된 적 없는 이석훈의 새로 발굴된 소설 「十年後」가 조선인과 일본인들에 의한 남양 개척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 소설의 주인공이 피식민지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양 군도의 원주민들을 제국주의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며 이상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표 5] 1848-1938년 사이 일본에서 번역된 『로빈슨 크루소』 작품 연보

순번	저자	역자	역서명	출판사	발행년	원서 'xury' 인명 번역	비고
1	魯敏孫(羅敏申)	구로다 키구로 (黒田麴麿)	『漂流記事』	長山東助 [寫]	불명 -1848(嘉永1) -1850경(嘉永3) -1850-1851 -1851경(嘉永4) -1860(万延1)	朱利	-총 6권 추정 -1권만 확인: '상·중·하' 구성,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행역 -네덜란드 역에서 증역 ²⁾ -원작자를 다니얼 디포가 아닌 '魯敏孫(羅敏申)로 오해 -2-6권 실물 미건
2	ダニエル・デイ フォー	요코야마 야스조 요시키요 (横山保三由清)	『魯敏孫漂流行 紀略』完	瓊華書屋	1857 (安政4)	奴僕?	-1冊 ; 19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행역 -네덜란드 역에서 증역 ³⁾ -1925년 오사카(大阪) 소재 두 출판사木村助次郎(1冊 ; 19cm), だるまや書店(2丁(2版共) ; 19cm)에서 각각 출판(실물 미건)
3	魯敏孫(羅敏申)	사이토 료안 (齋藤了庵)	『英國 魯敏孫全傳』 全二卷	東京: 鐵線書屋	1872 (明5)	朱利	-『魯敏孫全傳』 卷之1 (上) 『魯敏孫全傳』 卷之1 (下) -2冊(上31, 下42丁) ; 23cm -黒田麴麿, 『漂流記事』 1권과 판형은 다르지만 번역이 거의 같음. 원작자를 다니얼 디포가 아닌 '魯敏孫(羅敏申)로 오해 『魯敏孫全傳』 卷之1(上) 는『漂流記事』 1권(上)(中) 『魯敏孫全傳』 卷之1(下) 는『漂流記事』 1권(下)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행역 『魯敏孫全傳』 卷之1(上)(下)의 원작자명 한자 다음 (上): 魯敏孫(羅敏申) 혼용 (下): 魯敏孫(羅敏申) 1면
4	タニエールデ ホー	야마다 마사타카 (山田正隆)	『回世美談』	東京: 山田正隆	1877. 11. (明10)	ジリイ	-2冊(第1-3回, 第4回 合本) ; 18cm -第1回: 1877. 11. -第2回: 1878. 1. -第3回: 1878. 3. -第4回: 출판일 누락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앞부분만 발행역
5	魯敏孫?	요코쓰카 기쓰엔 (横須賀 楠園)	『(九死一生)魯 敏孫(島)物語』 『驥尾団子』	東京: 團々社	1879. 4-9. (明12)	無?	-冊子体 ; 冊 ; 24cm -1-7회 연재본까지 확인.(미완?) -매회 제목이 조금씩 바뀜 1회 목차 제목: 『九死一生 魯敏孫物語』 1회 『魯敏孫物語』 : 27호(4월 30일) 1회 『魯敏孫物語』: 28호(5월 7일) 2회 『魯敏孫物語』: 29호(5월 14일)

						<p>2회 『魯敏孫島物語』: 31호(5월 28일) 3회 『魯敏孫島物語』: 33호(6월 11일) 3회 『魯敏孫島物語』: 34호(6월 18일) 4회 『魯敏孫島物語』: 37호(7월 9일) 4회 『魯敏孫島物語』: 38호(7월 16일) 5회 『魯敏孫島物語』: 39호(7월 23일) 5회 『魯敏孫島物語』: 41호(8월 6일) 6회 『魯敏孫島物語』: 43호(8월 20일) 6회 『魯敏孫島物語』: 44호(8월 27일) 7회 『魯敏孫島物語』: 46호(9월 10일)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앞부분만 발췌역</p>	
6	魯敏孫島物語須	사이토 료안 (齋藤了庵)	『英國魯敏孫 島物語』: 一名英國漂流 記事』上編	東京: 三書房	1883, 10. (明16)	朱利	<p>-31, 24丁; 23cm -川越屋松次郎 출판 -齋藤了庵, 『英國 魯敏孫全傳』(上)(下)(東京: 香芸堂, 1872)과 동일한 책, 『英國 魯敏孫全傳』, 『英國魯敏孫島物語』: 一名英國漂流記事』(上編)에 합권. 원작자를 대니얼 디포가 아닌 『魯敏孫島物語』로 오해 -『魯敏孫島物語』중 『留 자는』 자와, 『英國魯敏孫島物語』중 『鳴 자는』 자와 본문 내 혼용 표기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췌역</p>
7	ゾーフラー	이노우에 쓰토무 (井上勳)	『絶世奇談 魯敏孫漂流記』	東京: 博聞社	1883 (明16)	ジュリ ー	<p>-410p; 20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번역(원작 충실히 번역, 소설 끝 부분은 원역 아님) -金根 譯, 『絶世奇談 羅賓孫漂流記』(京塚 義進社, 1908)의 저본</p>
8	デフォー	카쿠도 우시아마 료스케 (鶴堂牛山良助)	『新譯 魯敏孫漂流記』	東京: 和田篤太 郎	1887, 3. (明20)	ジュ ーリ ー	<p>-178p; 19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 하권(1719.8) 발췌역 -印刷所: 秀英舎 -일본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출판사가 '東京: 春陽堂'로 표기 -원작자명 'デフォー'의 'デ' 자는 'テ' 자와 본문 내 혼용 표기 -총 12회</p>
9	?	?	『ロビンソン 漂流記』(前號 續キ), 『學窓會雜誌』 6	京都: 學窓會	1889, 11. (明22)	?	<p>-冊; 22cm -실물 미검 -연재 번역 추정</p>
10	-	譯者不明	『ロビンソン, クルソー』 (上)(下), 『國民』 18-19호	東京: 鳴草書院	1892, 9-10. (明25)	無	<p>-冊; 22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췌역 제18호, 9월 18일 제19호, 10월 3일</p>
11	ダニエル・デ フォー	타카하시 유타 (高橋雄峯)	『ロビンソン クルソー 絶島漂流記』 (上)(中)(下)	東京: 博文館	1894 (明27)	ジュリ ー	<p>-『世界文庫』 第11-13編 -180, 169, 140p; 22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 하권(1719.8) 발췌역</p>

							(上) 3월 6일: 『로빈슨 크루소』 상편 번역 (中) 3월 15일(?), 판권란 낙장: 『로빈슨 크루소』 상편 번역 (下) 3월 24일: 『로빈슨 크루소』 하편 번역 -1897년에는 3권 합권본 출판 -역자명 '高橋雄峯'의 '峯' 자는 '峰'자와 본문 내 혼용 표기
12	-	도요후미 마츠오 (松尾豊文)	『ロビンソンクルーソー 直譯註釋』	東京 金刺芳流 堂	1898. 7. (明31)	ジュ リー	-223p ; 19cm -상권(총 12장) -12장은 섬 생활 3년차 생활상 소개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발췌역 -본문 제목: 『ロビンソンクルーソー傳直譯註釋』
13	-	오에 사자나미 (大江小波)	『無人島大王 ロビンソン漂 流記』	東京 博文館	1899 (明32)	ジュリ イ	{世界お伽噺 第五編 英國の部 -오에 사자나미는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의 초기 필명.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발췌역
14	ロビンソン クルーソー	스즈키 토리이치로 (鈴木虎市郎)	『ろびんそん くるーそー』 其の1	東京 育成會	1902. 8. (明35)	?	-40p ; 23cm -실물 미전(발췌역 추정)
15	?	사노 덴세이 (佐野天聲)	『ロビンソン 物語』	東京 富山房	1904. 4. (明37)	?	-少年世界文學 第16篇 -95p ; 22cm -실물 미전(소년세계문학에 분량상 발췌역 추정)
16	DANIEL DEFOE	스가노 도쿠스케 (菅野徳助) 나구라 지로 (奈倉次郎)	『無人島日記』	東京 三省堂	1907. 3. (明40)	無	-青年英文學叢書 第6編 -174p 函版 ; 15cm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중 일부 영일(英日)대역본 -1928년 같은 출판사에서 나구라 지로, 사와무라 토라지로(澤村寅二郎) 역으로 재출판(學生英文學叢書 第10編, 165p ; 15cm)
17	ダニエル・デ フラー	모모시마 미사오 (百島 操)	『ロビンソン 漂流記』	東京 内外出版 協會	1908. 6. (明41)	クリー	-通俗文庫 第6編 -79p ; 19cm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하편(1719.8) 발췌역 -『序』는 모모시마 레이젠(百島冷泉)으로 표기(모모시마 레이젠은 모모시마 미사오의 별명)
18	-	사가와 슌스이 (佐川春水)	『ロビンソン、 クルーソー漂 流記』 1-4, 『英語の友』	東京 建文館	1909. 3-6 (明42)	無	-冊 ; 22cm -『英語の友』는 월간 잡지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발췌역 -대역본
19	ダニエル、デ フラー	學窓餘談社	『ろびんそん くるーそー』 奮闘の生涯』	東京 春陽堂	1909. 4. (明42)	ズリイ	-338p ; 19cm -상권(第1段第8段):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중 전반부 발췌역. -판권란 뒷장에 2, 3권 근간 예고(총 3권)

20	Daniel Defoe	스즈키 마사시 (鈴木正士) 譯註	『ロビンソン クルーソーの 話』	東京 英語研究 社	1909. 11. (明42)	ジュ リ ー	-初等英語叢書 第8編 -146p ; 19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췌역
21	-	요코지 료우키치 (横地良吉)	『ロビンソン 、クルーソー 』 『正義の鐘』 上・下	東京 博文館	1909. 11. (明42)	無	-英語世界叢書 5 -191p ; 19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췌본(영문)을 발췌역(일문) -대역본
22	?	마즈시마 고우 (松島剛)	『ロビンソン クルーソー抜 粹』 『正則初等英 語』 第1卷 第3号	東京 正則初等 英語社	1909 (明42)	?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췌역 -실물 미견
23	?	스즈키 마사시 (鈴木正士) 譯註	『後のロビン ソン』	東京 英語研究 社	1910. 5. (明43)	?	-初等英語叢書 ; 第11編 -142p ; 19cm -실물 미견
24	Defoe, Daniel	사사야마 준이치 (笹山準一)	『漂流奇談 新譯ロビン ソン』	大阪 精華堂	1910. 7. (明43)	ジュリ ー	-付: 『孤島壹年間の日記』 -191, 38p ; 19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하권(1719.8) 발췌역 -본문에는 역자명을 사사야마 료우로(笹山狂浪)로 표기 -사사야마 료우로(笹山狂浪), 『ロビンソン』, 大阪 善松堂, 1927(191, 47p 図版 ; 19cm, 課外讀物)은 같은 저자의 같은 책.
25	ダニエル・デ フォー	學窓餘談社	『奮闘美談 ろびんそんく るそう』	東京 春陽堂	1911. 1. (明44)	ズリイ	-719p ; 22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하권(1719.8) 완역 추정 -學窓余談社譯, 『ろびんそんくるそー』 奮闘の生涯,(東京 春陽堂, 1909)와 합권. 표지 그림 및 내용 동일(상화는 다름)
26	?	다가하시 고로 (高橋五郎) 가토 교에이 (加藤教榮)	『漂流物語 ロビンソンク ルーソー』	東京 富田文陽 堂	1911. 5. (明44)	?	-실물 미견
27	Defoe, Daniel	사사야마 준이치 (笹山準一)	『絶島奇談 新譯ロビン ソン漂流記』	大阪 立川文明 堂	1911. 9. (明44)	ジュリ ー	-285p ; 13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하권(1719.8) 발췌역 -본문에는 역자명을 사사야마 료우로(笹山狂浪)로 표기
28	ダニエル・ツ ー・フォー	히네다 마츠에 (羽田松江)	『ロビンソン クルーソー漂 流奇談』	共同刊行 東京 國文館書 店 大阪 一書堂書 店	1912	ジュリ ー	-336p ; 19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번역, 대체로 완역
29	ダニエル・デ	히라다 토쿠보쿠	『新譯ロビン	東京	1917	?	-428p ; 21cm

	フォー	(平田秃木)	『ソン漂流記』	富山房			-실물 미건
30	?	大日本文明協會編	『ロビンソン・クルーソー』	東京: 文明書院	1920	?	-133p ; 19cm -실물 미건, 분량 참고 시 완역 아님
31	Defoe, Daniel	후쿠미츠 미키 (福光美規)	『ロビンソン・クルウソオ』	東京: 表現社	1921	?	-世界少年文學選 第1編 -실물 미건, '少年文學인 만큼 발췌역 추정
32	デフォー	칸노 코쿠사이 (簡野黒水)	『ロビンソン漂流記』	東京: 春江堂	1922	ジュリ	-197p 図版 ; 15cm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하편(1719.8) 발췌역
33	ダニエル・ドフォー	하시모토 타마츠 (橋本玉造)	『(新譯)ロビンソン漂流記』	東京: 大盛堂	1923	ジュリ	-再版(초판: 1922) -1冊: 19cm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하편(1719.8) 발췌역 -1924년 '東京: 大盛堂書房'과 '城北書房'에서 '世界童話로 改版하여 公衆 간행(323p ; 16cm, 실물 미건) 목차 비교 시 판형 동일
34	?	토모에다 테루오 (友枝照雄)·마즈미야 슌이치로 (松宮春一郎)	『ロビンソン＝クルーソーとその家族』, 『イギリス小學讀本 第4學年』	大久保町 (東京府): 世界文庫刊行會	1923-1925	?	-실물 미건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발췌역
35	デフォー	타케노 토우스케 (武野藤介)	『ロビンソン・クルーソー』	東京: 春秋社	1924	ジュウリイ	-春秋社童話文庫 -131p ; 20cm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발췌역
36	デフォー	나카가와 쿄우카 (仲剛紅果)	『ロビンソン漂流記』	大阪: 日本出版社	"	ジュリ	-日本兒童文庫 第13 -少年讀物 -219p ; 19cm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발췌역
37	ダニエル・デフォー	童話研究會 編	『ロビンソン漂流記』	東京: 博文館	1925	小僧	-模範童話選集 1 -418p ; 20cm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발췌역
38	?	하마다 히로스케 (浜田廣介) 編	『世界童話選集』	東京: 文教書院	"	?	-新譯世界教育名著叢書 第9卷 -451p ; 19cm -실물 미건 -『로빈슨 크루소』 발췌역
39	ダニエル・デフォー	야오키 시게오 (青木茂男)	『新譯ロビンソン物語』	東京: 崇文堂	1926	ジュウリイ	-312p 図版 ; 20cm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발췌역
40	?	中等教科書出版協會編輯部	『ロビンソン・クルーソー＝Robinson Crusoe』	東京: 中等教科書出版協會	1927	?	-173p ; 19cm -실물 미건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발췌역
41	デフォー	기쿠치 간 (菊池 寛)	『ロビンソン漂流記』	東京: 興文社	"	エツクジュリ	-小學生全集 72 -206p 図版 ; 22cm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하편(1719.8) 발췌역
42	スイフト,	金の星社編輯部	『ガリバー旅』	東京:	"	クウス	-金の星家庭文庫(1)

	데포어		行記 アラビヤン・ ナイト/ ロビンソン漂 流記	金の星社		리	-468p 図版 ; 19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췌역
43	데포어	이시이 요우넨 (石井蓉年) (編纂 兼 發行)	『ロビンソン 漂流記』	東京: ヨウネン 社	1928	쿠스 리	-課外讀本學級文庫 -189p 図版 ; 20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췌역
44	다니엘·데 포어	야마노 도라이치 (山野虎市)	『ロビンソン 漂流物語』	東京: 金の星社	"	쿠스 리	-金の童話文庫(1) -121p 図版 ; 20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췌역 -목차의 각 장 제목과 본문의 각 장 제목 상이(편집 오류) -야마노 도라이치, 『ロビンソン漂流物語』(1928) 목차의 각 장 제목은 스이프트·데포어, 金の星社編輯部譯, 『ガリバー旅行記』アラビヤン・ナイ ト/ロビンソン漂流記(東京: 金の星社, 1927)에 수록된 『ロビンソン漂流記』와 동일 -山野虎市, 『ロビンソン漂流記』, 東京: 金の星社, 1937(5版, 121p ; 19cm, 少年少女世界名作物語 9)년 책은 1928년 책과 같은 책으로 추정(1937년판 실물 미검)
45	?	世界文庫刊行會 編	『ロビンソン= クルソーと その家族』, 『歐米小學讀 本 4年』	東京: 平凡社	1929	?	-1冊 ; 20cm -실물 미검. 友枝照雄·松宮春一郎, 『イギリス小學讀本 第4學年』(世界文庫刊行會, 1923-1925) 책과 목차 비교 시 같은 책으로 추정.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췌역
46	DANIEL DEFOE (다니엘· 데포어)	시미즈 시게루 (清水 繁)	『ROBINSON CRUSOE (ロビンソン 漂流記)』	東京: 研究社	1930	주어 리	-研究社英文註釋叢書 第24編 -1冊 ; 19cm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췌역
47	데포어	시라이시 지쯔조 (白石實三)	『ロビンソン ・クルソー(デフォエ作)』, 『世界大衆文 學全集』 ロビンソン・ クルソー・ 十五少年・ 他一篇』	東京: 改造社	"	?	-第40巻 -490p ; 16cm -실물 미검, -목차 참고 시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췌역 추정
48	데포어	히라다 토쿠보쿠 (平田禿木)	『ロビンソン 漂流記』 前・後篇	東京: 春陽堂	1932	?	-少年文庫 58-59 -前篇: 185p ; 17cm, 실물 미검 -後篇: 187p ; 17cm, 소장 -前・後篇: 『로빈슨 크루소』 상권(1719.4) 발췌역
49	다니엘·데 포어	다니자키 신 (谷崎 伸)	『ロビンソン ・クルソー』	東京: 金蘭社	1933	?	-180p ; 21cm -실물 미검, 목차 참고 시 『로빈슨

			: ひらかな二年 生』				크루소』 상편(1719.4) 발췌역
50	デフォー	시미즈 시게루 (清水 繁)	『ロビンソン 漂流記』	東京: 研究社	1935	?	-研究社英文譯註叢書 第26 -研究社 編 -6冊 ; 18cm, 7版 -실물 미검
51	ダニエル・デ フォー	타카다 쓰토무 (高田 力)	『Robinson Crusoe(ロビン ソン クルーソー)』	東京: 研究社	1936	ジュ ー リー	-The basic English library 5 -137, 18p ; 19cm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발췌역 -영일대역본
52	デフォー	우치가사키 코이치로 (内ヶ崎浩一郎)	『ロビンソン 漂流記』	東京: 外語研究 社	"	?	-239p ; 20cm -실물 미검, 목차, 분량 참고 시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발췌역 추정 -목차 참고 시 영일 대역본 추정
53	ダニエル・デ フォー	미나미 요이치로 (南洋一郎)	『ロビンソン 漂流記』	東京: 大日本雄 辯會講談 社	1938	ジュリ イ	-350p ; 20cm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발췌역
54	デフォー	히라다 토쿠보쿠 (平田禿木)	『ロビンソン 漂流記・カリ バア旅行記』	東京: 富山房	"	ジュウ リイ	-1冊 ; 26cm -각 252, 268p 図版23枚 ; 24cm -『로빈슨 크루소』 상편(1719.4) 발췌역

52) 황미정, 앞의 논문, 같은 면.

53) 상동.

| 참고문헌 |

1. 기본 저서

- 『綠旗』, 『東光』, 『民聲』, 『三千里』, 『三千里文學』, 『新東亞』, 『新女性』, 『어린이』, 『日本婦人』, 『第1線』, 『朝光』, 『中央』, 『太陽』, 『한글』, 『現代文學』
『京鄉新聞』, 『그리스도신문』, 『동아일보』, 『每日申報』, 『釜山日報』, 『少年朝鮮日報』,
『朝鮮放送協會內報』, 『朝鮮日報』, 『한국교육신문』
- 김영민·구장률·이유미, 「그루소의 흑인을 엮어 동모호·ㅁ」,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 문학 자료전집』 상, 소명출판, 2003, 99-101면.
- 金橫, 『絶世奇談 羅賓孫漂流記』, 京城 義進社, 1908.
- 다니엘 디포, 김병익 역, 『로빈슨크루소』(상), 문학세계사, 1993.
- 다니엘 디포, 최인자 역, 『로빈슨크루소』(하), 문학세계사, 1993.
- 대니얼 디포, 윤혜준 역, 『로빈슨 크루소』, 을유문화사, 2009(2008).
- 李石薰, 『로빈슨漂流記』(1)-(12), 『少年朝鮮日報』, 1939. 6. 25.-1939. 9. 10.
- 『이석훈의 학적에 관한 와세다(早稻田)대학 교무부의 조사 결과 보고서』, 1994. 12. 13.
- 鄭仁果, 『로빈슨크루소』(1)-(7), 『아이생활』, 京城 아이생활社, 1930. 10, 12-1931. 1, 2, 4, 5, 6.
- 崔南善,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1)-(6), 『少年』, 漢城 新文館, 1909, 2, 3, 4, 7, 8, 9.
- Daniel Defoe, 奇一牧師·李源謨 譯, 『그루소표류기—무인절도에서파선호·ㅁ—』, 京城 朝鮮耶臨敎書會, 1925.
- 大江小波 編, 『無人島大王 ロビンソン漂流記(世界お伽噺 第五編)』, 東京: 博文館, 1905.
- 川戶道昭·榊原貴教 編, 『十八世紀イギリス文學集』(明治翻譯文學全集 《新聞雜誌編》 13), 東京: 大空社, 2000.
- 川戶道昭·中林良雄·榊原貴教 編, 『明治期翻譯文學總合年表』(明治翻譯文學全集 《新聞雜誌編》 別卷 1), 東京: 大空社, 2001.
- _____, 『明治期翻譯文學總合年表』(明治翻譯文學全集 《新聞雜誌編》 別卷 2), 東京: 大空社, 2001.
- デフォー, 菊池寛譯, 『ロビンソン漂流記』, 東京: 興文社, 1927.
- DANIEL DEFOE, *THE FURTHER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Lightning Source Inc, 2004.
- _____, *Robinson Crusoe*,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 단행본

- 金秉喆, 『開化期の 翻譯文學』,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乙酉文化史, 1975, 267면.
- 金錫燾, 『섬안악네』, 黃錫禹編, 『青年詩人百人集』, 朝鮮詩壇社, 1929, 103면.
- 다이애나 수하미, 조숙경·윤선아 역, 『셀커크의 섬』, 동아일보사, 2004.
- 마리아 니콜라예바, 조희숙 외 역,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주)교문사, 2009, 296면.
- 文濟安, 『잊을 수 없는 拉北 선배들 (방송)』, 李銀九 외 編, 『돌아오지 못한 언론인들 - 6·25전쟁 言論受難史-』, 社團法人 大韓言論人會, 2003, 122면.
-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09, 159-162면.
- 박진영, 『번역과 번안의 시대』, 소명출판, 2011, 70-74면.
- 방정환, 『난파선』, 『사랑의 선물』(개벽사, 1922), 한국방정환재단 엮, 『정본 방정환 전집』 1, (주)창비, 2019, 26-37면.
- 李石薰, 『序』, 『黃昏의 노래』, 漢城圖書株式會社, 1936, 1-2면.
- 이석훈 저, 김용성 편, 『이주민 열차(외)』, 종합출판 범우, 2005, 413-446면.
-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조선일보 사람들-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중앙, 2004, 525면.
- 편집부 편, 『최신 인명사전』, 민중서관, 1992, 155면.
- 『解放後四年間 出版大鑑』, 朝鮮出版文化協會, 1948, 14-15면.
- Jeremy Munday, 정연일·남원준 역, 『번역학 입문-이론과 적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2006).
- 『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 東京: 朝日新聞社, 1994.
- 國書刊行會 編, 『文明源流叢書』 第1, 東京: 國書刊行會, 1913-1914.
- ヂャツク・ロンドン(London, Jack) 著, 天光社編輯部 譯, 『南洋放浪記』, 東京: 天光社, 1929.
- ジェレミー・マンデイ, 鳥飼政美子 監譯, 『翻譯學入門』, 東京: みすず書房, 2012(2009).
- 豊田實, 『日本英學史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1939, 621-646면.

3. 논문

- 고부웅, 『영문학 속의 식민이데올로기-『로빈슨 크루소』에 나타난 식민주의-』,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5. 11, 306-320면.
- 김수자, 『20세기 초 최남선의 '세계적 지식'의 전달 방식-『로빈슨 크루소』번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30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6. 6, 193-225면.
- 박홍규, 『우리 안의 괴물들, 로빈슨 크루소와 오리엔탈리즘』, 『초등우리교육』, 초등우

- 리교육, 2003. 8, 102-109면.
- 배경진, 「디포의 도덕적 지리학」, 『현대영미어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현대영미어문학회, 2017. 10, 33-37면.
- 배혜정, 「로빈슨 크루소와 부르주아 남성성」, 『역사와 경계』 104, 부산경남사학회, 2017. 9, 1-38면.
- 신미삼, 「이석훈의 「로빈슨漂流記」, 발굴과 소개」, 『근대서지』 제20호, 근대서지학회, 2019. 12. 30, 487-537면.
- 오영식, 「최장수 어린이 잡지 『아이생활』 소개」, 『근대서지』 제20호, 근대서지학회, 2019. 12. 30, 661-784면.
- 오현숙, 「개화계몽기 『로빈슨 크루소』의 변안과 아동 텍스트로의 이행」,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2012. 12, 299-332면.
- 원용찬, 「대니얼 디포와 로빈슨 크루소 ❶: 근대 부르주아지의 가족과 합리적 개인의 탄생」, 『인물과사상』, 인물과사상사, 2014. 3, 150-161면.
- _____, 「대니얼 디포와 로빈슨 크루소 ❷: 자본주의 여명기에 나타난 원시적 자본축적의 모습들」, 『인물과사상』, 인물과사상사, 2014. 4, 150-161면.
- 조성순, 「대중성과 예술의 경계에 선 『소년조선일보』 삽화」, 『근대서지』 제20호, 근대서지학회, 2019. 12. 30, 817-857면.
- 최병갑, 「『로빈슨 크루소』: 정치적 읽기」, 『신영어영문학』 16집, 신영어영문학회, 2000. 8, 193-211면.
- 황미정, 「근대초기 번역소설의 번역어 연구—「거인국표류기」, 「로빈슨무인절도표류기」의 일본어 번역본과의 비교분석—」, 『일본문화연구』 제51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7, 427-450면.
- 白川豊, 「李石薰(牧洋) 作品考—資料整理を中心に—」, 『朝鮮學報』 第160輯, 1996. 7, 133-188면.
- 林直樹, 「『ロビンソン・クルーソー』とイギリス帝國」, 『尾道文學談話會會報』 8号, 尾道市立大學芸術文化學部日本文學科, 2018. 2.
- 李 云, 「東アジアにおける『無人島大王』という譯本について」,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第12号, 2019. 3. 31, 447-460면.

4. 기타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A Study on the Robinson Pyoruki Translated by Lee Suk-hoon

Shin, Mi-Sam

This article aims to consider *Robinson Pyoruki* which was translated by a novelist of Joseon Dynasty, Lee Suk-hoon and included in *The Chosun Children's Daily*. *Robinson Pyoruki* which was translated by Lee Suk-hoon was newly discovered in the summer of 2019. Although the writer of this article briefly interpreted the work last year along with the details of discovery, the study left much to be desired failing to determine the origin at that time. As a consecutive task of the study, this article is focused on determining the origin of *Robinson Pyoruki* translated by Lee Suk-hoon that was a unsettled task of the time and looking into the work in more depth.

When it comes down to it, *Robinson Pyoruki* translated by Kikuchi Kan in Japan in 1927 is the translation source of *Robinson Pyoruki* translated by Lee Seok-hoon, which means Lee Suk-hoon retranslated. The reasons why the translated version of Kikuchi Kan is the translation source of Lee Suk-hoon's translated version are as follows. First, when analyzing total 54 tables of contents of *Robinson Crusoe* translated in Japan before 1939 when Lee Suk-hoon translated *Robinson Pyoruki*, only one book, *Robinson Pyoruki* translated by Kikuchi Kan has almost the same table of contents as the title of each episode of Lee Suk-Hoon's translation. Second, in terms of the contents, the two translations of Lee

Suk-hoon and Kikuchi Kan have homology. Generally, the first sentence of each chapter or the first sentences of the paragraph have almost similar forms of sentence description. Lastly, only Kikuchi Kan and Lee Suk-oon translated the name ‘Xury’ in the original English book into ‘Exshuri’. ‘Exshuri’ was found only in Kikuchi Kan’s translation excepting 17 unrevealed ones of total 54 works of *Robinson Crusoe* translated in Japan before 1939. On the basis of the argument above, this article determines that *Robinson Pyoruki* of Kikuchi Kan is the translation source of *Robinson Pyoruki* of Lee Suk-hoon.

Key words: Lee Suk-hoon, *Robinson Pyoruki*, Kikuchi Kan, The Chosun Children’s Daily, Translation, Origin

투 고 일 : 2020년 2월 20일

심 사 일 : 2020년 2월 22일-3월 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3월 26일